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27일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1가구 평균 113만원

국세청이 27일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2만 가구에 총 1조8174억원이 지급되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한도 상향 조치로 전년보다 2302억원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가운데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반기분 지급일이 아닌 8월 정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분에 비해 지급액은 10% 깎이게 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추경호 “올해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중견기업들 적극 투자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중견 기업인들을 만나 세제 혜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 올해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추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양적인 고용 상황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와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주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 해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투자하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과 관련해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하다. 세계적으로 금융 상황도 변동성이 여전하고 그 다음에 경기 측면도 불확실성이 많다”고 평가하며 “가만히 앉아서 세상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남보다 더 빨리 열심히 달려야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희망의 빛을 빨리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경제에서도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 중견 기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힘내 달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내수 활성화·원활한 인력 확보·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매입자 계산서 발행제도 시행

국세청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매입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 반영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을 거래했다는 것을 증빙한다.

그런데 판매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매입자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주 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가 있는 지 내년 6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제 거래임이 확인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